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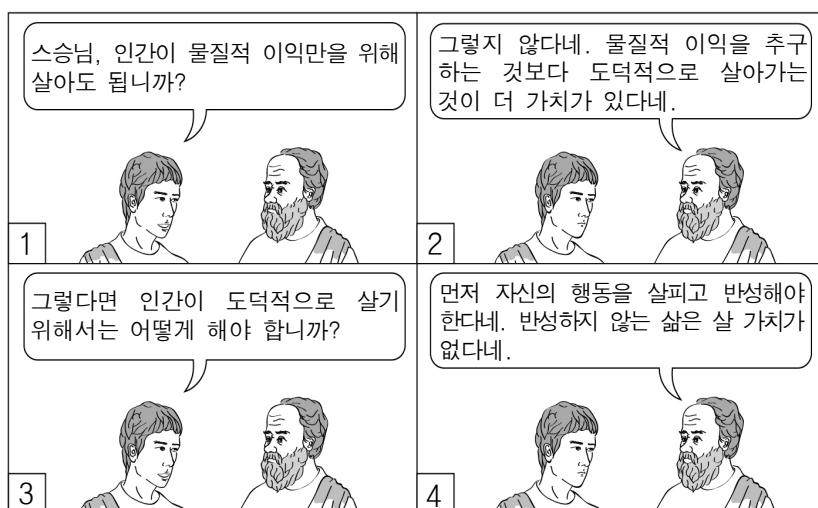
수험 번호

2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의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권위 있는 학설을 검증 없이 수용하여 실천하는 존재이다.
- ② 이성적 사고나 판단 없이 관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 ③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 ④ 초월자의 가르침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 ⑤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노력하는 존재이다.

2.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은/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덕적 삶과 도덕적 행위에 관한 생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 ㉡ 은/는 사회적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개념적 틀로서, 사회 체제나 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고 그것의 구현 과정을 체계화한 것이다.

- ① ㉠은 도덕적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② ㉠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준다.
- ③ ㉡은 현실을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 ④ ㉡은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안내해 준다.
- ⑤ ㉠과 ㉡은 상호대립적인 관계로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벼린다면 도(道)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을 좌망(坐忘)이라고 한다. 도는 오로지 텅 비우는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心齋)라고 한다.

- ① 사물에 대한 분별적 지혜를 토대로 도를 체득해야 한다.
- ② 도의 관점에서 시비선악(是非善惡)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 ③ 물아일체(物我一體)에 도달하기 위해 자연을 속박해야 한다.
- ④ 외물(外物)에 얹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하기 위해 감각적 경험에만 의지해야 한다.

4.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도 썸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썸기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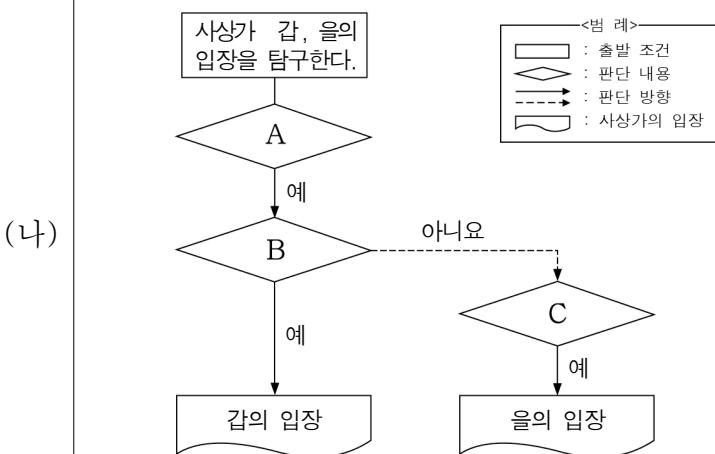
을: 삶이 있을 때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이 없어질 때 늙음과 죽음도 없어진다. 죽음이 다가올 때 팔정도(八正道)와 같은 가르침에 따라 행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① 삶과 죽음은 기(氣)가 모이고 흘어지는 필연적 과정인가?
- ② 내세의 삶은 현세에서 자신이 행한 업(業)의 결과인가?
- ③ 죽음은 내면적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가?
- ④ 내세보다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가?
- 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마땅히 애도(哀悼)해야 하는가?

5.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군자(君子)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수양하고 남을 편안하게 한다.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이거나 토지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균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한다.

을: 성인(聖人)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無知)하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한다. 무위(無爲)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 <보기>
- ㄱ. A: 통치자가 덕(德)을 갖추면 백성이 다스려지는가?
 - ㄴ. A: 도(道)에 따르는 삶을 위해 수양(修養)이 필요한가?
 - ㄷ. B: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형법(刑法)의 폐지가 필요한가?
 - ㄹ. C: 통치자의 인위적 조작이 없으면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지는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6.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즉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하여 의도적 행위[行]들이 생겨나고,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의식[識]이 생겨나고, 의식을 조건으로 하여 정신·물질이 생겨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생멸(生滅)하며 변화 한다.		√			√	√
삼라만상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		√	√
인간의 현실적 삶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		√	√	
세속의 모든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 무명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7. (가)의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성(性)은 곧 이(理)이다. 마음에서는 성이라고 부르고, 일[事]에서는 이라고 부른다. 성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한 이치이니 온전하게 선하지 않음이 없다.</p> <p>을: 심(心)은 곧 이이다. 마음 밖의 일이 없고, 마음 밖의 이치가 없다. 마음이 사욕(私欲)에 가려지지 않은 것이 곧 천리(天理)이니, 마음 밖에서 보탤 필요가 없다.</p>
(나)	<p><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을의 공동 입장 C: 을만의 입장</p>

<보기>

- ㄱ. A: 개별 사물 속에 있는 이치를 탐구하여 얇을 지극히 해야 한다.
 ㄴ. B: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해야 한다.
 ㄷ. B: 마음은 본체인 성(性)과 작용인 정(情)을 모두 통괄한다.
 ㄹ. C: 얇[知]을 얻는 것이 얇을 실천하는[行] 것보다 중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영지(靈知)의 기호(嗜好)는 우리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행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형구(形軀)의 기호는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마음이다.

○ 사단(四端)의 단은 시작[始]을 뜻한다. 측은(惻隱)은 인(仁)의 시작이고, 수오(羞惡)는 의(義)의 시작이고, 사양(辭讓)은 예(禮)의 시작이며, 시비(是非)는 지(智)의 시작이다.

- ① 사덕(四德)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타고난 본성이다.
 ② 영지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③ 인격완성을 위해 인간의 모든 생리적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④ 사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실천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다.
 ⑤ 인간은 선행이나 악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9.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해 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道)에 가깝다. 땅처럼 낮은 곳에 처하고, 마음은 연못처럼 고요하며, 사귐에 인자하고, 말에 믿음이 있어 잘 다스려지고, 일에 능력이 있으며, 움직임에 때를 맞춘다.

<보기>

- ㄱ. 외적 규범인 예(禮)로써 순수한 자연의 덕을 회복해야 한다.
 ㄴ. 강력한 법으로 통치하여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실현해야 한다.
 ㄷ. 겸허(謙虛)와 부쟁(不爭)의 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ㄹ. 만물의 근원을 따르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겨남과 사라짐은 둘이 아니고, 움직임과 고요함은 다름이 없다. 이것을 일심(一心)의 법이라고 한다. 비록 그 실상은 둘이 아니지만 하나를 고수하지는 않고, 전체가 연기(緣起)에 따라 생동하고 전체가 연기에 따라 사라져 없어진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생겨남이 곧 사라짐이고, 사라짐이 곧 생겨남이라 막힘과 걸림이 없으며 하나가 아니면서 다름이 아니다.

- ① 대립되는 이론과 종파를 조화[和諍]시켜야 하는가?
 ② 일심의 원리로 교리 해석의 획일성을 추구해야 하는가?
 ③ 진리[聖]과 세속[俗]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아야 하는가?
 ④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근원적으로 같음을 알아야 하는가?
 ⑤ 특정 형식과 계율에 구속되지 않는 무애(無碍)를 실천해야 하는가?

11.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 ◦ 임금은 신하를 예(禮)로써 대하고, 신하는 군주를 충(忠)으로써 대해야 한다. 정사(政事)를 펴려면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아야[正名] 한다.
(나)	<p>학생: 사회 혼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상가: _____ ㉠</p>

- ①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② 문명을 거부하고 마음을 비워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③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④ 자신의 생명 보존만을 중시하고 타인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⑤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克己復禮] 삶을 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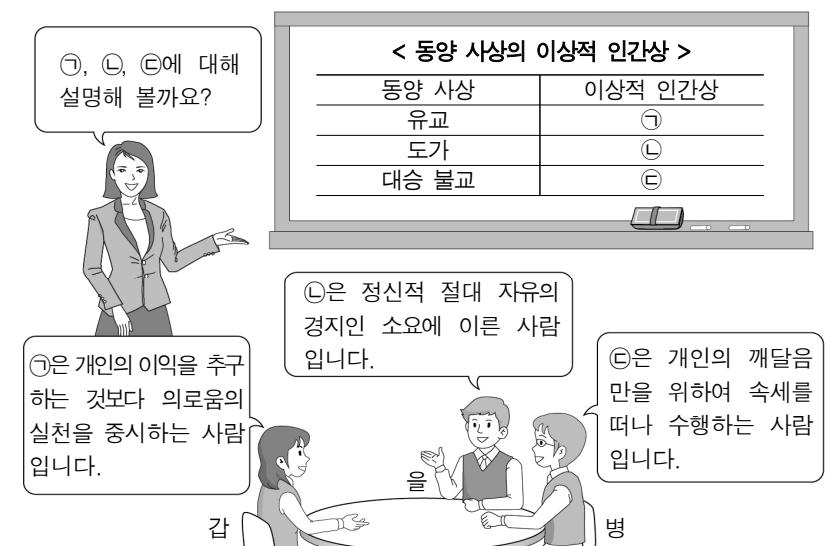
12. 다음은 근대 한국 종교 사상을 검색한 화면이다. (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동양 사상	이상적 인간상
유교	㉠
도가	㉡
대승 불교	㉢

1860년에 최제우가 창도(創道)한 민족 종교로 19세기 후반 봉건체제가 서서히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 후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와 '사람 섬기기를 한울님같이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

- ① 사람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평등한 사회 구현을 주장한다.
 ② 보국안민(輔國安民)의 실현을 위해 봉건적 질서 확립을 주장한다.
 ③ 현실에서 이상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④ 일원상(一圓相)을 핵심으로 삼아 불교의 대중화를 주장한다.
 ⑤ 유·불·도를 부정하고 서양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은 답변을 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갑, 을 ⑤ 을, 병

14. 다음은 어떤 학생의 필기 내용 중 일부이다. ㉠~㉢ 중 옳지 않은 것은?

1. 중국 도교 사상의 전개와 특징
 1) 전한 시대: 황로(黃老)학파
 - 황제와 노자의 사상을 충상함 ㉠
 - 무위(無爲)로써 백성을 다스릴 것을 강조함 ㉡
 2) 후한 시대: 오두미교(五斗米教)
 - 도가를 종교적으로 계승함
 - 도덕적 선행(善行) 없이 종교적 의례만을 강조함 ㉢
 3) 위·진 시대: 현학(玄學)
 - 도가를 철학적으로 계승함 ㉣
 - 세속을 초월한 청담(淸談)을 중시함 ㉤

2. 한국 도교 사상의 전개와 특징

- 1) 고려 시대
 - 국가적 행사로 거행된 재초(齋醮)가 성행함
 2) 조선 시대
 - 소격서(昭格署) 폐지 후 쇠퇴함

① ㉠ ② ㉡ ③ ㉢ ④ ㉣ ⑤ ㉤

15. 중국 사상가 갑, 한국 사상가 을의 공통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곧 중생이고,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이다. 모든 진리[法]는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어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진여(眞如)의 본성을 단박에 깨닫지[頓悟] 못하는가?

을: 깨달은 후에도 오래도록 닦아 차츰 익혀야[漸修] 한다. 망념이 훌연히 일어나면 따라가지 말고 버리고 또 버려야 궁극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문득 깨달은 다음에도 마음을 길들이는 수행[牧牛行]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보기>

- ㄱ. 경전 공부를 해야만 열반(涅槃)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ㄴ. 자신의 본성이 곧 부처임을 스스로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
 ㄷ. 인간은 누구나 본래부터 청정한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
 ㄹ. 선정[定]을 버리고 지혜[慧]를 습득하면 성불(成佛)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고 2

16.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을 두 변으로 나눌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성(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누어 두 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理)는 반드시 기(氣)를 타야 발(發)하는 것이니, 기가 발하지 않고서 이가 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을: 사단과 칠정도 이를 위주로 말하거나 기를 위주로 말할 수 있다.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른다는 것은 이를 위주로 말한 것이니 사단이 이것이다. 기가 발함에 이가 탄다는 것은 기를 위주로 말한 것이니 칠정이 이것이다.

<보기>

- ㄱ. 갑: 칠정은 인간이 지닌 감정으로 이와 기가 함께 있다.
ㄴ. 을: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라 드러난 것이다.
ㄷ. 을: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지만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다.
ㄹ. 갑,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선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난세(亂世)를 극복하려면 올바른 우리의 도(道)를 밝혀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인애(仁愛)의 정신을 넓혀가야 한다. 올바른 우리의 도를 담고 있는 정학(正學)을 밝힘으로써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일에 먼저 힘써야 한다.
을: 동양인들은 형이상에 밝기 때문에 그 도가 천하에 홀로 우뚝하며, 서양인들은 형이하에 밝기 때문에 그 기(器)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전 세계를 평정할 수 있다.

- ① 갑: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리학적 질서를 버려야 한다.
② 갑: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을: 서양의 사상과 종교를 모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④ 을: 유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
⑤ 갑, 을: 국가 발전을 위해 동양의 도덕 규범을 배척해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이기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다툼과 빼앗음이 생겨나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선왕(先王)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한 까닭에 예(禮)를 제정해 구분을 지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었다.

<보기>

- ㄱ. 인위적인 노력[僞]으로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ㄴ. 군주는 강력한 법과 술(術)로써만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
ㄷ. 예로써 사회적 지위와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ㄹ. 하늘을 도덕적 근거로 삼아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차마 어찌하지 못함에 이르는 것이 인(仁)이고,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의(義)이다.
○ 무력을 바탕으로 인정(仁政)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을 패도(霸道)라 한다. 패도는 반드시 큰 영토를 차지하려 든다. 한편 덕으로써 인정을 베푸는 것을 왕도(王道)라고 한다. 왕도는 굳이 큰 영토를 기대하지 않고 이를 수 있다.

- ①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② 양지(良知)를 형성하기 위해 외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본다.
③ 군주는 인의(仁義)의 덕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한다고 본다.
④ 후천적 노력 없이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다고 본다.
⑤ 선비는 항산(恒產)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①~⑤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 문제: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용수가 『중론』에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나므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공(空)을 강조하며 성립하였다.
(나) 무착과 세친이 『해심밀경』을 기초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오직[唯] 마음의 인식 작용인 식(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성립하였다.

-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①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되므로 고정된 자아가 없다고 주장하며, ② 과락과 고통의 양극단에 집착하는 중도(中道)의 삶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나)는 ③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마음의 작용으로 현상은 생겨날 뿐이라고 주장하며, ④ 마음이 만들어 낸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강조하였다. 한편, (가), (나) 모두 ⑤ 개인의 해탈뿐만 아니라 중생 구제를 실천하는 이타적 삶을 강조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